

비상경제장관회의
23-5

지역 기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2023. 2. 16.

관계부처합동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운영현황 및 평가	3
III. 주력산업 개편 원칙	6
IV. 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7
1. 주력산업 개편(안)	8
2. 주력산업 육성방향	11
V. 향후 추진계획	14

I. 추진배경

□ 지역의 성장정체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 지역경제의 자생력 약화

-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의 해외이전, 소득과 인력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 가중
 - *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 ('10년) 51.6 → ('15년) 49.9 → ('20년) 47.5
 - 비수도권 취업자 비중(%) : ('10년) 50.3 → ('15년) 50.2 → ('20년) 49.7
- 인구감소지역(107개)의 93.5%(100개)가 비수도권으로, 지방소멸 위기
- 그간 지역정책이 산업·공간·인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주체인 기업육성 정책과 괴리
 -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년)의 3대 전략은 사람, 공간, 산업으로 구성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에 대한 고려 미흡

□ 지역기업 육성의 핵심인 주력산업 고도화·다각화, 촘촘한 육성 필요

※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선정 → 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R&D·사업화 지원

- 전후방 연관 구조에 대한 고려 없는 주력산업 선정으로 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고, 광범위한 산업설정으로 투자의 효과성 제약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업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 제시 (국정과제 117번)
- 기존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등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산업 선정·육성으로 주력산업의 다각화 추진 필요
- 획일화된 R&D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R&D·인프라·인력 등 촘촘한 육성체계 구축 필요

⇒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력산업 및 육성체계 개편 추진

① 시·도 중심의 63개 지역주력산업 신설 (14.3월)

-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정책을 시·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63개 주력산업 신설

* ① 기존 광역경제권 중심 **광역선도산업**을 시·도 중심 **주력산업**으로 개편

② 기존 시·군·구 특화산업은 시·도 주력산업 및 시·군·구 연고산업으로 분리

- 광역경제권 지원산업과 시·군·구 중심의 특화산업 중 시·도 단위에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시·도별 5개 이내로 선정
- 신설된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개별 중소기업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신규 도입 (14. 2,576억원)

② 주력산업 조정 (63개→48개) 및 융·복합 비중 확대 (17.10월)

- 주력산업에 대한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63개 산업을 48개로 축소·조정
-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ICT 간 융합, 제조·서비스간 융·복합 비중 확대
- 제조·ICT 융합 : 7개 → 24개, 제조·서비스 융합 : 7개 → 11개

③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주력산업을 연계 (20.11월)

- 한국판 뉴딜 (디지털, 그린) 정책을 지역에 접목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 뉴딜과제를 지역주력산업에 포함
- 48개 산업을 유지하되 기존 산업의 대체·확장을 통해 디지털 뉴딜 (20개), 그린 뉴딜(19개), 고부가가치화(9개) 산업으로 개편

* (대체) 산업 자체를 개편, (확장) 산업은 유지하되 산업 내 육성 분야 조정·확대

Ⅱ. 운영현황 및 평가

1 지정 및 지원현황

- **(지정현황)** 지역의 전략적인 육성 수요를 반영하여, 시도별 3~4개 산업 (세종 2개)을 주력산업으로 지정 ('2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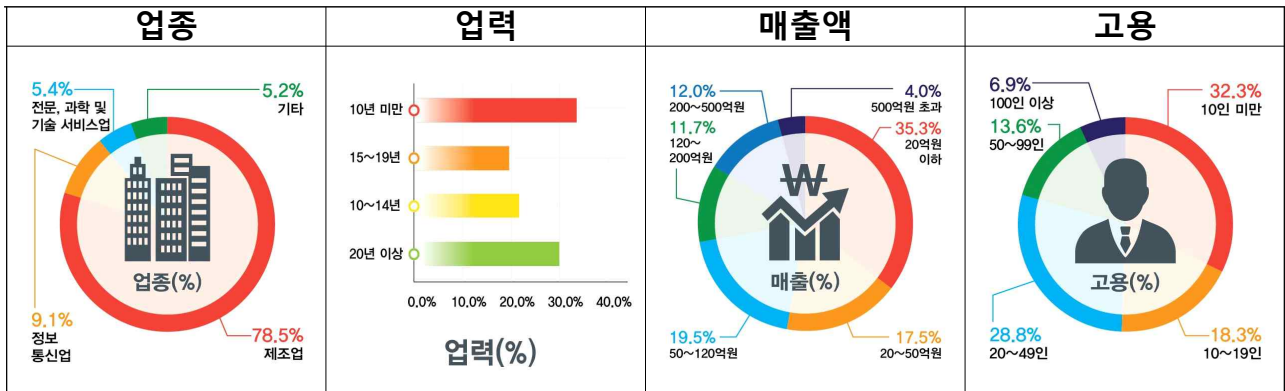
〈 시도별 주력산업 현황 〉

지역	지역주력산업	지역	지역주력산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ICT 융합헬스, 세라믹 복합신소재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 IT부품, 수송기계 소재부품	울산	저탄소 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소재
충남	스마트 휴먼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 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광주	지능형 가전, 스마트금형, 광융합, 디지털 생체의료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 로봇	전북	스마트 농생명·식품, 탄소·복합소재, 미래지능형기계, 조선해양·에너지
경북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라이프 케어뷰티, 친환경 융합섬유소재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남	첨단항공, 나노융합 스마트부품, 스마트기계, 항노화 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 **(지원현황)** 지난 6년간 ('17~'22년) **1.8조원** (국비 1.3조원, 지방비 0.5조원)을 투입하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8만개사** 지원

- 업종별로 제조업 영위기업이 78.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업력별로 10년 미만 기업이 32.5%로 다수
- 매출액 기준으로는 20억원 이하 기업이 35.3%로 다수를 차지하고, 고용은 10인 미만 기업이 32.3%로 가장 큰 비중



〈수혜기업 유형별 분포 현황〉



2 평가

- **(긍정적 측면)**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R&D·사업화 지원을 통해 매출·고용 등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유망기업 육성
 - **(매출·고용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수혜기업 ('17~'21년)은 **4.4조원의 매출**과 **2.2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 지원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율은 **10.0%p**, 고용증가율은 **12.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사업에 참여한 수혜기업과 규모 및 업종 등이 유사한 기업
 - **(유망기업 육성)**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앵커기업**으로 성장 유도
 - 고용창출 가능성과 성장성을 갖춘 지역 우수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R&D 및 사업화 등 집중 지원('18~'22년, 1,000개사)
 - * 스타기업 중 65개사가 글로벌강소기업(63개사), 중견기업(2개사)으로 성장, R&D 지원을 통해 신규일자리 425명, 사업화매출액 578억원 창출('20~'21)
 -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22.11월, 100개社) · 육성**
 - * 「지역중소기업법」('21.7월),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22.1월) 제정
 - ** 정부-지자체-간 연계·협력하여 R&D, 금융, 인력 등 메뉴판식 지원 프로그램 마련

〈유망기업 육성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 : (주)캐프 ('21년 기준 매출액 840억, 고용 304명) ■ 주생산품 : 자동차 와이퍼 블레이드 ■ 지원내용 : 와이퍼시스템 융합기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세속도 제어시스템을 겸비한 와이퍼 모듈 기술개발('18년) ■ 성과 : '22년 와이퍼 블레이드 애프터마켓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Top 5 달성 → 앵커기업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 : (주)수젠텍 ('20년 기준 매출액 413억, 수출액 390억) ■ 주생산품 :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 지원내용 : 신속한 출시를 위해 금형,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20년) ■ 성과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약 970%, 수출액 3,260% 증가 → 코로나 진단키트 신속한 공급을 통해 K-방역의 주역으로 성장

□ **(미흡한 측면)** 지역의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고, 국가 전략기술 및 현장의 산업수요 반영 등 미흡

○ 주력산업이 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구성되어, 지역 내 밸류체인 반영이 미흡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산업 범위 설정

* 라이프케어(부산) : 첨단의료 서비스, 치의학 제품·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해양유래 기능성 식품, 차세대 의료치료기기 등 밸류체인과 무관

〈현장의 목소리〉

■ 지역 산업·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기반 네트워크 및 핵심 품목별 밸류체인 등을 고려한 전후방 연관기업 패키지 지원 필요(지역테크노파크 간담회, '22.3월)

○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부족하여, 지역주력산업 육성이 국가정책과 분절되어 운영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월), 신성장 4.0 프로젝트('22.12월)

〈현장의 목소리〉

■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지역별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지역정책포럼, '22.10월)

○ 지역별 새로운 역점산업 선정으로 현장의 산업육성 수요와 주력산업 간 편차가 발생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

* 지역주력산업의 정의 및 선정기준 및 절차, 개편 주기 등

Ⅲ. 주력산업 개편 원칙

① 지역과 중앙이 함께 개편안 마련

- (지역) 14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산업 특성 및 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성장전략에 적합한 주력산업 개편안 제시
- (중기부) 주력산업 개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 및 성장전략을 협의 조정

〈그간의 경과〉

- (의견수렴)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지역주력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 광범위한 의견 청취 ('22.5 ~ 10월)
 - * 지자체, 지역 테크노파크, 전문가 그룹 등과 간담회 8회 개최
- (설명회)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력산업 선정기준, 방법, 일정 등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 ('22.11월)
- (전문가 컨설팅)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 조정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 ('22.12 ~ '23.2월, 4회 개최)

②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

- 성장주기가 다른 품목들로 구성된 기존 주력산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구분하여 전략 육성하고, 상호 성장을 유도
 - * 스마트기계산업은 지능형 융복합 가공기, 지능형 풍력부품 등 기존 주력품목에 무인선박 기자재, 지능형 로봇 등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신산업 품목 접목
- 기존 주축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

③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

- 기술협력·거래관계를 반영한 밸류체인 중심으로 주력산업 선정하고,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

IV. 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비전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어디에 살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

방향

함께 성장하는 지역 중소기업,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지역경제

추진
전략

주축산업 지원체계 개편

미래신산업 육성 프로그램 마련

- ① 기업성장형 프로그램 전환
- ② 기업컨소시엄형 지원
- ③ 지역 대표기업 육성

- ① 신기술 사업화 촉진
- ② 연구장비·시설 지원
- ③ 전문인력 양성·공급



제도 · 기반 고도화

- ① 지역중소기업 육성 거버넌스 고도화
- ② 지역주력산업 법제화
- ③ 지역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

< 지역주력산업 개편 >

	기존	개편
산업 구분	지역주력산업 48개	주축산업 41개 + 미래신산업 19개
구성 기준	품목의 유사성	기술협력 · 거래 중심의 공급망 반영
개편 유형	그린/디지털/ 고부가가치	[주축산업] 제외 · 대체/구체화/유지 [미래신산업] 지역단독형/지역협력형

1 주력산업 개편(안)

- ◆ 기술 성숙도 및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리
- ◆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등을 반영하여 주력산업 조정
 - * (기존) 주력산업 48개 → (개편) 주축산업 41개, 미래 신산업 19개

1 주축산업 : 공급망, 지역경제 내 산업비중을 고려하여 기존 주력산업 재편

- ◆ 기술 성숙도가 높고 산업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이라도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재편

□ **(제외 및 대체)** 기존 주력산업 중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11개 산업**을 주축산업에서 제외하고, **4개 산업**으로 대체

- A지역은 고용 및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금형산업을 제외하고, 지역 내 공급망이 형성되어 산업비중이 커진 산업을 새롭게 선정

지역	개편	개편 사유
A	스마트금형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금형산업 종사자수, 생산액 등 감소 * 3년 평균 종사자수 △2.07%, 생산액 △3.92%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 공장 설립으로 지역 내 거래관계 형성 및 높은 산업 비중* * 사업체수 9.7%, 종사자수 22.5%, 매출액 46.3%

- B지역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스마트시티 산업을 제외하고, 구성품목과 기업군이 명확하고 비중이 큰 산업으로 대체

지역	개편	개편 사유
B	스마트시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헬스케어 및 가전기기, 데이터송수신 SW, 원격 제어 시스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품목 포함
	기능성 바이오소재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정부 육성분야이며, 앵커기업 중심 기업군 형성 및 높은 산업 비중 * 사업체수 6.3%, 종사자수 13.9%

□ **[범위 구체화]** 핵심품목 거래관계 중심으로 **31개 산업** 범위 구체화

- C지역은 그린모빌리티 산업에서 관련 기업이 적은 도심항공모빌리티 부품과 자율주행플랫폼을 제외, 전기자동차 부품으로 구체화

지역	개편	개편 사유
C	그린모빌리티 (개편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전 그린모빌리티 산업은 전기차 부품, 도심항공모빌리티 부품, 자율주행플랫폼 등 광범위하게 구성 ■ 이중 관련 기업이 30개사 미만인 도심항공모빌리티부품과 자율주행플랫폼을 구성품목에서 제외 ■ 대신 전기차 공장 신축 등 전기차 전환추세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부품산업으로 구체화
	전기자동차 부품 (개편 후)	

- D지역은 기존 주력산업에 육성을 희망하는 다수 품목을 포함하였으나, 기업 분포 및 산업기반 등을 갖춘 품목 위주로 구체화

지역	개편	개편 사유
D	스마트 농생명·식품 (개편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전 건강기능성 식품·화장품, 헬스케어, 미생물 소재, 한약재·의약품, 동물용 사료·의약품, 작물보호제, 농자재 등 지역기반이 약한 품목도 다수 포함 ■ 관련기업이 다수 분포*하고 농생명 출연연 등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능성 식품, 동물용 의약품·사료 등의 품목위주로 구체화
	농생명 바이오 (개편 후)	<p>* 사업체수 1,541개사, 종사자수 13,603명</p>

□ **[산업 유지]** 지역 내 고용 및 생산 비중이 크고,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 등을 갖추고 있는 **6개 산업**은 유지

지역	산업 유지	유지 사유
E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계열사 중심 소부장 특화단지 등 클러스터 형성, 높은 산업 비중 * 사업체 수 6.6%, 종사자 수 17.3%, 매출액 22.9%

② 미래 신산업 : 국가전략기술 + 지역 혁신역량 등 고려, 19개 산업 선정

- ◆ 기술 성숙도나 산업기반은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등 국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선정

- **[지역 단독형]** 지역 내 앵커기업이나 혁신기관 보유 여부 등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선정

미래 신산업	지역	미래 신산업	지역
전력 반도체	A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H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B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I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C	수전해 수소생산	J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D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K
도심항공교통(UAM)	E	산업활용 혁신 AI	L
전기·수소차	F	5G-6G 위성통신	M
자율주행시스템	G	고난도 자율조작	N

- H지역은 지역내 앵커기업 중심으로 거래관계 기업군이 있고, 관련 혁신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모듈형 원자로 (SMR)를 선정

지역	산업 유지	유지 사유
H	소형모듈형 원자로 (SMR)	■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100여개 협력기업, 지역혁신 기관이 참여하는 SMR 거버넌스 구축

- **[지역 협력형]** 지역 간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초광역권 단위 협력을 통한 공급망 형성 및 기업군 육성이 가능한 산업 **5개** 선정

미래 신산업	지역	미래 신산업	지역
수소 저장·운송	A	유전자·세포 치료	H
	B		I
	C	차세대 고성능 센서	J
	D		K
반도체 첨단 패키징	E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L
	F		M
	G		

* 수소 저장·운송 : 수소 저장·운송 실증(A지역) - 수소 저장용기 제작(B지역)
- 수소 파이프라인 부품(C지역) - 수소 파이프라인 이송기술(D지역)

- ◆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정책 성과를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촉촉한 지원방안** 마련
- ◆ 성장주기가 다른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육성전략 차별화**

1 [주축산업] 기업군 지원 및 경쟁 유도, 성장유형별 맞춤 지원

- **[기업군 지원]** 주축산업 기업 육성방식에 '협력형 기술개발 과제'를 도입하고 과제당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공동기술 개발 유도
 - * (개별기업 과제) 최대 2년, 연 2억원 → (기업군 과제) 최대 2년, 연 10억원
 - 지역 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협력형 기술개발 과제기획을 위한 채널로 활용
- **[경쟁 유도]**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지역별 인센티브 예산 차등규모 확대
 - * 예시(S등급 인센티브) : (기존) 3개 지역 10억원 → (개편) 2개 지역 20억원
- **[성장유형별 지원]**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역별로 기업을 유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표기업 육성
 - 지역 주도로 혁신성 및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성장전략 수립
 - * 잠재기업군 → 예비 선도기업군 → 선도기업군
 - 유형별 기업군 특성과 수요에 기반하여, 지원 포트폴리오 구성
 - * (R&D) 기술창출형 R&D, 미래시장창출형 R&D, 기업주문기반형 R&D 등
 - ** (사업화) 판로·마케팅·전시회,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해외규격, 장비연계, IR 등
 - 지역혁신기관(TP,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

〈 성장단계별 유형 및 지원 포트폴리오 〉



- 잠재기업군 및 예비 선도기업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선도기업)으로 육성

② [미래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

- [미래 핵심기술 확보]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과제 기획 및 R&D 지원 (예타 추진)

- 지역이 주도하여 과제를 기획·제출하고, 과제의 효과성·구체성 등을 고려한 예산의 차등 배분으로 지역간 성과경쟁 유도

* ① 지역주도로 지역기업과 연계한 실용적 목표 설정, ② 중장기적으로 국가전략 기술 확보에 기여가 큰 기술분야 기획, ③ 경쟁기반 핵심 사업화 기술 확보 연구

-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초·원천부터 응용·개발까지 전주기 R&D 지원

- [패키지 지원] R&D 외에 투자·융자 등을 연계하고, 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시설·인력양성 등도 지원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 촉진

<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



- **(투자 촉진)** 지역혁신 벤처펀드 재원을 활용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투자 유도
 - *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자펀드를 조성중이며, '24년까지 5개 권역에 모펀드 4,100억원, 자펀드 6,000억원 이상 조성 예정
- 출자자 특성, 권역별 전략 업종 및 규제샌드박스 등을 고려하여 지역 소재 유망 중소기업 육성
- **(용자)** 시도별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시설 도입,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중진공 정책자금 우대* 지원
 - * (시설자금) 60억원 →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10억원
- **(장비·인력양성)** 지역 내 혁신기관 등을 활용한 장비 공동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별도 예산확보 노력 병행

3 [제도·인프라] 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법·제도 및 전달체계 정비

- **[법제화]** 지역주력산업 개편 주기 정례화 (5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일치) 등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
 - * 現 법적근거 : 균특법 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제3항(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주력산업의 정의, 선정기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 (가칭) 운영 등의 근거규정 마련
- **[지원체계 정비]** 테크노파크를 주력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지방중기청, 혁신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팀' 구성
 - 구성원이 함께 주력산업 성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연계지원을 통해 정책성과 조기 창출
 - 지역산업·기업 정보 및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통계시스템 구축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지역 테크노파크(TP)가 보유한 데이터 중 핵심항목을 선정하고 지역 데이터 표준화·고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V. 향후 추진계획

- ◆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따른 정책성과를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 및 법제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후속 세부계획 수립 및 발표

- 지역주력산업 개편의 상세내용과 기업지원 방안을 포함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위원회 심의·확정 ('23.2월)
 - * '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 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반영
- 동 대책 내용을 기반으로 중기부 - 지자체 간 협의·조정을 통해 별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 마련 ('23.3월)

□ 지역중소기업 육성 거버넌스 고도화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통해 지방중기청 및 지역별 TP*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23.4월)
 - * 지역주력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재편
- 지역주력산업 정의, 개편 주기 및 절차 등 법제화* 추진 ('23.6월~)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개별 정책과제 신속 추진 및 성과점검

- 개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지속 ('23.3월~)
- 지자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 및 신규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기업간담회 등) ('23.3월~)

□ 후속사업 및 신규사업 기획·추진

- 주축산업 육성 성과제고를 위한 계속 지원 및 미래 신산업 신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기획 추진 ('23.3월~)